



인주마을이야기 Since 2012 제15호



2025년 3월호

### 봄, 운동하기 좋은 계절

따스한 봄바람이 불면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 동네사람들이 모여 강변을 뛰는 달리기 동아리, 축구가 좋아 모인 아이들과 중년여성들,라운딩을 즐기는 어르신 파크골퍼들과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피클볼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초보에서 숙련자까지 함께해서 더 좋다.

관련 기사 2~7면

사진설명: 비봉 피클볼동호회원들이 연습을 시작하기 앞서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

- 삼레텔기축제 맛있는 현장 ... 8P
- 삶의풍경 임목마을 김영중 이야기 ... 10P
- 용기 작가 전설회 ... 12P
- 안남마을 장수어르신 생신 축하연 ... 18P

같이 해도 혼자 해도 “하하호호”

초보여도 숙련자라도 “아주 좋아!”

## 봄바람 슬~슬, 운동 합시다!



비봉 피클볼동호회 이성식(맨 왼쪽) 대표와 황봉근(맨 오른쪽) 코치가 1호 수강생들과 함께 웃고 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났다. 세상을 온통 회고 시리게 만들었던 눈이 다 녹고 나서도 남아있던 차가운 겨울 공기가 슬슬 희미해진다. 봄을 제일 먼저 알아차린다는 복수초가 마른 흙 위로 빼꼼 얼굴을 내밀었다. 동면을 끝낸 동식물에 이어 사람들도 기지개를 켜고 저마다 활동을 시작한다. 적당히 서늘하고 상쾌한 공기, 따뜻한 햇볕이 조화로운 초봄엔 구슬땀 내며 운동하기 좋다. 천변 따라 달리기, 피클볼, 파크골프, 축구, 그리고 퇴근 후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까지 봄 내음 맡으며 몸 풀러 나온 사람들을 만나봤다.

### 만경강 따라 아침을 달리다

혼자서 시작하기 어려운 일도 함께할 사람이 있다면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다. 단순히 달리기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동기부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삼봉 러닝크루’는 그 매력 때문에 나날이 회원이 늘어가고 있다. 운동에 필요한 기구를 따로 마련할 필요 없이 편한 옷과 운동화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맨몸 운동이라서 마음먹기도 쉽다. 삼례 신타리 천변으로 모인 후 초보자, 숙련자, 전문가로 나뉜 그룹은 각자의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리듬을 맞추고, 힘든 구간에서는 응원을 주고받으며 완주에 성공했다.

### 초보자도 숙련자도 대환영인 피클볼동호회


평일 오전 용진 군청 테니스장에서는 비봉 피클볼동호회 황봉근 코치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기본자세를 가르치는 데 한창이었다. 수업

이 끝난 후 자유롭게 짝을 지어 연습하는데,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청년, 주변을 지나가다가 흥미가 생겨 갑작스레 합류한 어르신, 테니스를 먼저 접해서 라켓 운동에 능숙한 시소놀이터 6학년 친구들까지 모두 공을 주고받는 재미에 푹 빠졌다.

그중 고산 귀촌 청년 조자영 씨는 자칭 유행회원 위치에서 막 벗어났다. 피클볼동호회에서 먼저 활동 중이었던 언니로부터 재미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만 하다가 올해부터 따라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자영 씨는 “아직 자세가 영성해서 계속해야 익숙해질 것 같지만, 생각보다 더 배우기 쉬워서 재미있다”고 웃었다.

### 공 치는 아이들, 공 치는 어르신들

느긋한 오후 고산에도 봄 날씨를 만끽하러 나온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다. 삼기리에서 만경강으로 합류하는 고산천을 따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지나쳐 고산생활체육공원에 다다랐다. 명랑한 웃음소리에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가보니 완주놀자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축구장에서 뛰어다니고 있었다. 발 사이로 요리조리 공을 굴리고, 때로는 과감하게 파고들어 시원하게 공을 차는 모습에 박수가 절로 나오기도 했다.

프로경기만큼이나 치열한 설전이 오가는 축구장에서 조금 멀어지면 만경강수변생태공원이 나온다. 그곳의 넓은 잔디밭에서 고산파크골프클럽 소속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라운딩을 즐기는 중이었다. 점수 내기에 진지하게 임하는 팀도 있고 여유롭게 산책하듯 홀을 도는 팀도 있다. 저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파크골프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어 가고 있었다. 



오늘도 완주!!

# 삼봉러닝 RUNNING CREW

# 크루

좋은 걸 함께하니 더 좋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과 운동의 즐거움을 동시에 얻고 있다는 '삼봉 러닝크루'를 만났다.

2월 8일 삼례읍 신탐리 천변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로 활기찼다. 완주군 삼봉지구에서 거주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달리기 모임 '삼봉 러닝크루'다. 형광빛의 단체복을 맞춰 입은 회원들이 각자 준비운동을 마친 후, 가벼운 대화 속 안부를 나누며 오늘 달리기로 한 코스를 확인했다. 어느덧 48번째를 맞이한 정기 훈련의 코스는 천변 아래 정자에서 출발해 비비정까지 가는 6~12km 거리다. 계속해서 뛰었을 때 1시간 안으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지만, 러닝크루에 함께한 지 얼마 안된 새내기 회원들에게는 "각자 체력에 맞게 걷고, 뛰고 편하게 가라"고 거듭 강조한다. 이윽고 시작 신호와 함께 사람들이 각자의 속도에 맞춰 달리기 시작했다. 빠르게 뛰는 사람들, 천천히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각자 다른 계기와 목표를 가지고 이곳에 모였지만 결국 한마음으로 같은 길을 달리고 있다.

### 고산파크골프클럽

고산파크골프클럽은 만경강수변생태공원 내에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파크골프의 매력을 즐기는 곳이다. 파크골프는 골프와 유사하지만 보다 간단한 규칙과 적은 장비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특히 연령대가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인기가 좋다. 주로 1인용 클럽과 더 큰 홀을 사용하여 평평한 코스에서 플레이하는 방식으로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다.

고산파크골프클럽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한 코스를 자랑하며 회원들은 푸른 풀밭과 산의 경치를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다.

소양에서 온 오순이(72) 어르신은 “남편과 함께 파크골프에 관심을 갖게 되어 참여하게 됐다. 파크골프는 골프와 비슷하지만 부담 없이 할 수 있어 좋고 고산 자연 속에서 경치를 즐기며 운동할 수 있어 더 매력적인 것 같다”며 “특히 팔과 다리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게 돼 전신 운동이 되는 느낌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웃었다.

이곳은 초보자부터 숙련된 골퍼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코스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 18홀 규모의 넉넉한 공간에서 여유롭게 라운딩을 즐길 수 있으며 라운딩 후에는 근처 고산미소시장에서 로컬 맛집을 방문해 맛있는 식사 즐긴다. 이런 이유로 고산파크골프클럽은 많은 사람들이 자주 찾는 인기 있는 명소다.

전주에서 온 이순란(74) 어르신은 “고산에서 파크골프를 한 지 벌써 3년 정도 됐다. 2시간 정도 운동을 하면 만보 정도 걷게 된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특히 근육 건강이 많이 개선된 걸 느낀다”며 “주말에는 익산과 전주에서 세 집이 모여 고산에 함께 온다. 점심도 시장에서 먹고 라운딩을 즐기곤 한다”고 말했다.

파크골프는 단순히 운동을 넘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좋은 활동으로 스트레스 해소와 신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운동으로 잘 알려져 있다. 회원들은 운동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서의 편안한 휴식과 교류를 통해 더욱 특별한 경험을 한다.

고산 원서봉마을 김평순(64) 씨는 “농사일로 바쁘지만 오후에는 꼭 운동하려고 한다. 힘든 농사일 이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파크골프가 큰 즐거움이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전주에서 온 이순란 씨 부부와 고산 김평순 씨(가운데).

## “맑은 공기 마시며 건강 챙기고 친구도 사귀고”



왼쪽부터 봉동 민영관 어르신과 소양 오순이 어르신

지난해 1월부터 러닝크루에 합류하여 2대 회장을 맡고 있는 만경강사랑 삼봉 러닝크루 박상진(49) 대표는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 번에 많은 거리를 뛰거나 빠르게 달려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말고, 매주 조금씩 자신이 할 수 있는 속도에 맞춰서 즐기는 게 좋아요. 걷기만 잘하면 누구나 잘 뛸 수 있으니까 천천히 실력을 늘리면 되죠.”

박 대표가 처음 크루에 가입했을 때만 해도 4~5명이 전부였던 러닝크루의 회원 수는 1년 여 만에 55명으로 대폭 늘었다. 회원들은 ‘삼봉 러닝크루’의 인기비결로 ‘자유로움’을 꼽았다. 우선 회비가 따로 없어서 달리기를 하고 싶은 누구나 선뜻 참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맞는 사람들끼리 즉흥적으로 만나 뛰는 ‘번개런’이 많다. 또한, 러닝크루는 각기 다른 실력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자신만의 페이스에 맞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에 그 과정에서 연령과 성별을 넘어선 우정을 쌓기도 한다.

“삼봉 러닝크루는 만경강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굳이 댄다는 것보다는 같이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좋은 풍경을 보고,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일상에서도 많은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완주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는 삼봉 러닝크루 회원들.

**참여 문의** 박상진 대표 010-9109-2065



# 오늘은 내가 챔피언!

## 완주놀이지역아동센터 축구동아리



따스한 햇살이 조금씩 봄을 알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28일 완주놀이지역아동센터 축구 동아리의 11명 아이들이 고산생활체육공원에서 활기찬 시간을 보냈다. 아직 쌀쌀한 바람이 감도는 오후 아이들은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축구를 즐기며 팀워크와 기술을 다졌다. 봄을 맞이하는 듯한 기분 좋은 에너지가 가득한 가운데 이들은 축구 동아리 활동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날 축구 동아리 소속 11명의 아이들은 오후 외부 스포츠 활동 시간을 맞아 축구에 참여하며 뜨거운 열정을 발산했다. 참여한 학생들은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구를 통해 체력을 올리고 협동심을 키우고 있다.


활동에 처음 참여한 막내는 “형들과 처음으로 경기를 하는 거라 오늘 시간만 손꼽아 기다렸다. 형들이 패스를 잘하면 칭찬해줄 때 기분이 아주 좋았다”며 웃었다.

완주놀이 축구 동아리는 8년 동안 아이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활력과 유대감을 선사해왔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금요일에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12명이 모여 축구를 즐긴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아이들은 축구 동아리 활동에 열정을 쏟고 있다.

특히 동아리의 주장은 축구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그는 “선생님이 항상

축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한 팀이니까 서로를 비난하거나 닳하지 말고 격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늘 생각하고 있다”며 “축구를 할 때마다 친구들이 서로를 응원하며 다치지 않고 즐겁게 경기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실력이 점점 향상되기를 바라며 팀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이들의 반응에 대해 활동을 지켜보는 설준수 생활복지사는 “아이들이 외부로 나와 축구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체육활동을 통해 서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고 말했다.

완주놀이지역아동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건강한 신체와 긍정적인 사회성을 키워나갈 것이다. 

### 완주놀이지역아동센터

완주놀이지역아동센터는 전북 지역 최초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다. 완주놀이는 세이브 더칠드런과 협력하여 교육 놀이 및 여러가지 활동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들의 방과후 돌봄 사업이다. 보호권이 보장되지 않은 소외된 면 지역아동의 방과 후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조성하고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쌀쌀했던 날씨가 순식간에 풀린 2월 25일 오전, 움츠러들었던 몸을 풀기 위해 아침부터 부지런히 용진의 테니스장을 찾은 사람들이 있었다. 관리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문을 열기 전부터 가벼운 공이 이곳저곳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들렸다. 소리의 주인공은 비봉 피클볼동호회 이성식 대표와 몇몇 회원들이었다.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는 사무실처럼 좁은 곳에서 할 수 없는 반면 피클볼은 이런 일상공간에서도 가능하다”고 말한 이 대표는 “구멍이 뚫린 공은 속도가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강하게 쳐도 세계 날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유리창에 부딪혀도 깨질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피클볼은 실외용 공 표면의 구멍 개수가 늘어나는 것 외에는 공과 패들(라켓),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누구든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 피클볼 코트의 외관과 경기 방식은 테니스와 유사하지만, 코트 규격이 테니스의 3분의 1도 안 된다. 배드민턴과 비교하자면 복식 배드민턴 코트의 2분의 1 정도 공간을 사용하며, 서브는 반드시 언더핸드 스트로크로 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 공이 먼저 땅에 튀지 않으면 패들로 공을 칠 수 없다는 점에서 탁구와 비슷하다.


“50~60대가 되면 원래 하던 운동을 계속하기엔 몸에 무리가 와요. 특히 테니스는 팔꿈치나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는데, 그래서 저처럼 테니스 하



위\_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테니스협회의 강습이 끝난 후 회원들과 함께.  
아래\_ 시범 경기를 선보이는 이성식 대표와 황봉근 코치.

던 분들이 피클볼로 많이 넘어오죠.”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모아 피클볼동호회를 시작한 지 어느새 2년째, 60여 명의 회원은 매주 화요일, 토요일 오전에 모이고 있다. 이날 모인 회원들은 고산, 용진, 봉동 등에서 온 이들로, 초등학교생부터 30대, 60~70대까지 다양했다. 나이도, 운동 경험도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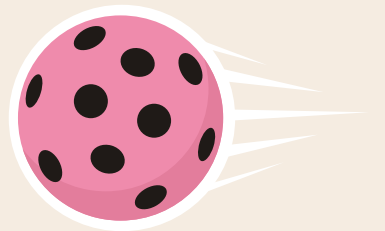
럼 함께 피클볼을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낮은 접근성 덕분이다. 피클볼은 레슨 기간이 긴 테니스와 달리 하루 이틀이면 배울 수 있으며, 특히 라켓 종목을 접해본 사람들은 첫날부터 게임이 가능하다. 또한 한 사람당 5~10만 원 정도면 패들을 마련할 수 있고, 정해진 면적에서 지을 수 있는 전용 구장의 수가 많으니 경제적인 면에서도 접근성이 낮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신체적 접근성에 대해 언급하며 피클볼을 ‘약자를 위한 스포츠’라고 말했다. 함께 게임하는 사람끼리 격차가 크지 않아 무리하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좁은 면적에서도 가능한 스포츠라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게 최적화된 스포츠 중 하나다.

지난달 대만으로 떠난 여행에서도 피클볼 선진지 견학을 할 정도로 피클볼에 대한 이성식 대표의 열정은 뜨겁다. 그는 피클볼동호회 운영 외에도 소리문화의전당, 전북장애인테니스협회 등 여러 외부단체의 요청에 응해 피클볼을 전파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완주군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에 비봉면 내월리 마을사업이 선정되어 피클볼 코트 조성에도 열중하고 있다. 올해 5월 말에 준공 예정인 피클볼 코트는 8면짜리로, 현재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대 피클볼 전용 구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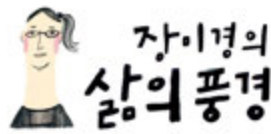
**참여 문의** 이성식 대표 010-6358-6699

통통 튀는 경쾌함 비봉 피클볼동호회

# 탁구+테니스+배드민턴=피클볼!!



수강생들과 함께한 이성식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황봉근 코치(왼쪽에서 네 번째).



### 엄목마을 김영중 이야기

엄목마을 앞에 흐르는 천을 바라본다. 언제부터 이 물길이 흘렀는지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변함없이 살아가는 그 천을 바라본다. 물길도 그대로, 천등산의 능선도 그대로건만 다부졌던 청년은 여든 노인이 되었다. 늘 변함없을 것만 같던 물길은 여름만 되면 폭우를 만나 거칠어졌다. 김영중(1946년생) 어르신은 여름 장마철 큰물로 발길이 막혔던 그 시절을 기억한다. 기필코 마을 앞에 큰 다리를 놓아야겠다고 결심하던 순간이었다. 군 제대 후 엄목마을의 이장이 된 그는

습살이를 하면서도 어깨 너머 천자문을 깨우쳤다. 오로지 한문을 배워야 사람 구실을 하고 대우받는 사람이 된다고 믿는 이였다. 엄한 아버지 말을 잘 따르던 그는 초등학교 졸업 후 엄목서당에서 10년 동안 한문을 배웠다. 명심보감, 통감, 소학, 대학, 논어, 맹자를 배우는 동안 15명의 동급생들은 다 떠나고 혼자만 남아 공부를 하며 십대 시절을 보냈다. 스승님이 아끼는 유일한 제자였다.

“스승님이 어느 날은 나보고 중용을 배우라고 그

돌아온 그는 한 살 어린 신부와 식을 올리고 농군의 삶을 살았다. 논농사만 짓던 그 시절에 다소 생소한 작물이었던 딸기와 취나물 농사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던 때였다.

“제대하고 막 나왔을 때 논에서 일하고 있는데 면직원이 찾아와서 이장하라고 그래. 면장실로 나를 끌고 가다시피 해서 면장 앞에서 차령경례를 시키네. 그렇게 이장 일을 본 거지. 나 이장할 때 최고 큰 사업이 뭐였냐면 마을 앞 냇가에 다



엄목다리 개통식에 모인 마을 사람들, 40대부터 하루를 기억하기 위해 쓰기 시작한 행유록, 50대 무렵 문방구를 넣어두기 위해 직접 만든 케이스.

1978년에 그 결심을 이루었다. 그 당시 지역 신문에 그가 기고한 글을 옮긴다.

『1968년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해 큰비가 내렸고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장선천에 큰 물이 흘렀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이 내를, 옷을 벗고 위험을 무릅쓰며 건너지 않을 수 없었다. 장선천에 다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언제나 위험스럽게 생각해 왔지만 그 해 큰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장선천을 건너 모내기를 하고 오던 마을 주민 30여 명이 한꺼번에 물에 떠내려간 것이다. 천명이라 할까. 다행히도 한 사람의 의사자도 없이 헤엄쳐 나오긴 했으나 언제 사고가 또 있을지 모르는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장선천을 건너 3킬로나 떨어져 있는 학교에 통학하는 것을 볼 때 이곳에 기필코 다리를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 한문이 제일인 줄 알고 살아왔지

김영중 어르신의 아버지(故김개동)는 남의 집 머

러서, 중용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중심 잡는 거야. 그런데 책을 살 돈이 없었지. 그래서 동네에서 숯장사하는 분을 따라다녔지. 우리 동네에서 30리 길을 가서 숯을 굽는데, 그 당시는 숯장사가 불법이었어. 경찰한테 뺏기니까 밤에 지게에 짊어지고 오는 거야. 눈을 피해 길도 없는 곳을 헤쳐가면서 오는 거지. 지게에 숯 10관을 짊어지고 오는데 계속 걷다 보니 나중에는 발도 안 떨어지고, 겨울인데도 땀이 나서 등허리에 소금이 허영게 맺혀. 그렇게 숯을 팔아서 중용이라는 책을 샀지. 귀한 책이었지. 그렇게 여러 공부를 깨우친 거지.”

#### 젊은 이장의 푸른 꿈

김영중 어르신은 미 육군 제7보병사단에 입대해 DMZ수색대로 복무하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지만, 밥때마다 나오는 고기와 짹짹한 맥주의 맛은 지금 생각해도 극락같은 맛이었고 그때를 떠올린다. 선임하사로부터 ‘카츄사 김은 넘버원 카츄사!’라는 찬사를 듣고 무사히 고향으로

리 놓은 거였어. 그 당시 관급자재로 시멘트하고 철근은 관에서 사줬지. 그해 6월 30일이 준공일이었는데 그 전 12월 23일부터 동네 사람들이 앞에 냇가에서 모래를 채취하기 시작했지. 사람들이 부역을 나와서 조를 짜서 일을 한 거지. 동네 사람들이 스스로 놓은 다리라고 봐야지. 다리 개통되었을 때 그때 기분이 진짜 좋았어. 다리 위에서 고사도 지내고 풍악을 울리고 시끌벅적했지. 다리 개통식을 하고 한 3일 후에 비가 부실부실 오기 시작하더니 마치 다리를 시험하는 것 마냥, 다리 바로 밑에까지 냇가 물이 차서 흘러가네. 옛날 같으면 다 쓸려 내려가니까 얼씬거리지도 못했을 텐데 끄떡없는 다리 위에서 그 물을 보니까 참 대단하네.”

#### 변함없이 늘 주변을 돌보는 사람

학문의 끝에 도달한 사람은 늘 일상에서 자신을 정비한다는 말이 있다. 김영중 어르신은 명심보감, 통감, 소학, 대학, 논어, 맹자와 같은 고전들을 평생 몸에 익히며 살아왔다. 한 번 읽고 끝내

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깊이 새기고자 반복해서 읽고 쓴다. 매주 금요일이면 고산향교에서 한문을 공부하는 노년의 유림이자 하루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정성스러운 기록가이다. 그의 작고 낮은 탁자에는 종이를 편철하여 직접 만든 낡은 책들이 쌓여 있다. 17살 무렵 먹을 갈아 붓으로 한자한자 써 내려간 주역은 지금도 생각나면 펼쳐보는 책이다. 낡은 서류봉투를 재활용해 편철한 노트 표지에는 '행유록行流錄'이라 써 있다.

“사십대부터 쓰기 시작했지. 그저 하루의 지난날을 기록한 거야. 나는 어두운 세상을 사는 거야. 누가 요즘 이런 것을 쓰셨어요? 그냥 낙으로. 둔해지고 정신이 흐려지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쓰는 거야. 저녁 7시나 8시쯤 이 자리에 앉아서 먹을 갈고 붓으로 써 내려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



직접 편철하여 제작한 책들

하는 것은 군자지도(君子之道)라 하여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음을 자꾸 씻어내려. 그래야 몸을 지키는 거야. 고약한 마음, 나쁜 마음을 얼른 씻어내고 몸을 바르게, 행동을 바르게, 양심을 바르게. 그거지 뭐, 다른 것 있가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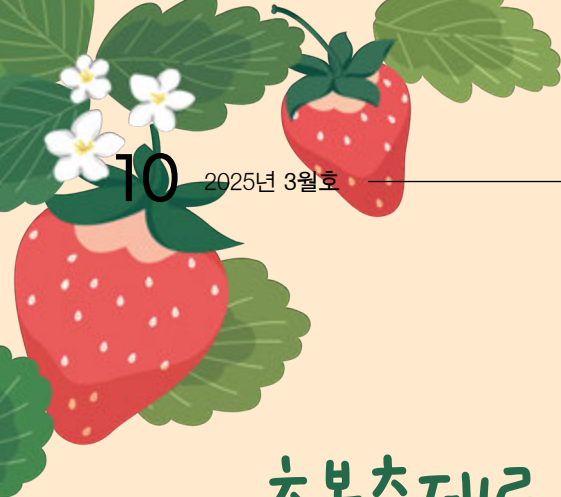
김영중 어르신 댁에서 이야기를 나눈 뒤 그 냷가로 다시 걸어갔다. 몇 해 전 새로 만들어졌다는 엄목마을 다리 앞에서 본다. 노후화된 옛날 다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 옛날 다리 위에서 풍악을 울리며 고사를 지내던 사진은 생생하다. 다리 개통식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마을의 제일 연장자이신 95세 어르신이 다리 입구에서 끝까지 무사히 걸어가는 것이었다고 한다. 젊은 이들의 왁자지껄 웃음소리, 팽과리 소리, 아낙들의 덩실덩실 춤사위 너머 천등산의 능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글·사진=장미경 장미경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고산미소시장에서 공동체가 만든 제품을 파는 편집매장 흥흥을 운영한다.



# 마음을 자꾸 씻어내며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

그의 작고 낮은 탁자에는 종이를 편철하여 직접 만든 낡은 책들이 쌓여 있다. 17살 무렵 먹을 갈아 붓으로 한자한자 써 내려간 주역은 지금도 생각나면 펼쳐본다.



# 초봄축제로 입소문 “완주의 3월은 딸기딸기하~”

## 제23회 완주삼레딸기대축제 현장

‘제23회 완주삼레딸기대축제’가 지난 3월 7일부터 9일까지 삼례읍 삼례농협 뒤 공영주차장에서 열렸다. 올해 축제는 10만여 관광객이 방문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번 축제는 ‘초봄 방문하고 싶은 축제’를 주제로 기획하여 소소하고 다양한 체험과 딸기를 활용한 먹거리를 준비했다. 딸기 수확 체험부터 대형 딸기 케이크 만들기, 딸기 스탬프 투어, 딸기 꿈나무 자랑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동반한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삼레딸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판매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특히 삼레딸기를 활용해 만든 ‘완주삼레딸기풍당막걸리’가 완 판되기도 했다. 시중 가격의 30%를 할인하여 판매한 딸기는 지난해 축제 물량의 2배인 20톤을 준비했지만, 오후 4시쯤 모두 팔리며 삼레딸기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행사 개막을 축하하는 삼례농악단의 퍼레이드가 행사장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어린이들이 삼례딸기로 만든 생크림 케이크를 선보이는 딸기꿈나무자랑대회 예선이 진행되고 있다.



완주의 문화 예술인들

07

한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저에는 문화 예술이 있다.  
문화와 예술이 없는 삶은 삭막할 것이다.  
여기, 마음의 허기를 채워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지역 문화 예술인을 소개한다.



“나는 옹기를 키우는 농부”

옹기작가 전 설 희

전설희 씨는 옹기작가다.  
옹기 하면 보통 장독 같은 항아리나 뚝배기를 먼저 떠올리는데  
그녀는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그릇을 만든다. 주로 차 도구다.  
옹기토와 약토, 나뭇재같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재료를 사용해 만들지만  
방식은 상감 같은 자기의 기법을 일부 응용하고 있다.

### 왜 옹기였나요.

처음 도자기를 배울 때 책에서 옹기의 자연 환원성에 관한 글을 읽었어요. 옹기는 자기에 비해 온도가 낮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흙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학부시절 옹기수업을 해주셨던 선생님 덕분에도 확신을 얻었어요. 재료에 대한 실험을 많이 시키셨는데 예를 들면 학교 뒷산에 있는 대나무를 태워서 그 재료 잿물을 만드는 실험을 한다든가, 개펄이나 황토, 야산에 있는 흙을 캐와서 흙 실험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었는데 그런 실험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자연물로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자기류는 유약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광물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광물은 제가 직접 채취할 수가 없잖아요. 옹기는 제가 직접 다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 수 있으니 이 정도면 내가 혼자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담백하고 명쾌한 것이 좋아요. 옹기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작업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옹기가 저의 속도와 잘 맞는다는 것이예요.



### 환경에 대한 생각이 강하게 작용한 건가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사라지는 것처럼 만들었던 것들도 흔적을 안 남기고 싶은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고 또 이걸 해야 제가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옹기가 저랑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옹기를 만들고 있으면 그냥 좋거든요.

### 도기와 자기의 차이가 뭔가요.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를 합한 말이에요. 옹기는 도기에 들어가요. 백자, 청자, 분청은 자기류에 속하는데 도기와 자기는 불 때는 온도도 다르고 작업 과정도 달라요. 자기류는 초벌과 재벌 이렇게 두 번 불을 때는데 옹기는 거의 한 번 땁니다. 재벌이 없어요. 재료의 특성 때문이에요. 일단 자기류가 초벌하는 이유는 그냥 마른 흙에 유약을 입히면 흙이 주저앉아버려요. 그 형태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만든 형태가 유지될 수 있게 조금 낮은 온도에서 초

벌로 단단히 만든 다음에 유약을 바르고 재벌 과정을 거쳐 완성합니다. 도기는 달라요. 그냥 흙 상태의 그릇에 잿물(유약)을 쳐서 구어요. 그래도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재료의 특성이 다르거든요.

### 옹기 재료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옹기의 재료는 단순합니다. 흙과 천연유약인 잿물이 다예요. 잿물은 약토와 나뭇재를 섞어 만드어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쓰는 건 아니예요. 흙은 철분 함유량과 입자를 봅니다. 약토도 실험을 통해 원하는 흙을 찾아요. 옹기에 입히는 잿물은 세 가지 종류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요. 상감용이 있고, 발색이 조금 다른 두 종류의 잿물을 사용하는데 그릇의 크기나 형태에 따라 그에 잘 맞는 색감을 사용하려고 해요. 약토는 김제에서 직접 퍼 오는데 수비를 해서 고운 입자의 흙을 골라내서 사용하고 나뭇재는 요즘 소나무 재를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소나무 재와 약토의 배합 비율에 따라 발색이 달라져요. 나뭇재가 꼭 소나무일 필요는 없어요. 콩대도 쓰고 참나무나 잡재도 괜찮아요. 작가마다 원하는 발색을 찾아 재료를 선택합니다.



### 요새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옹기는 숨을 쉰다고 하잖아요? 그릇에 미세한 기공이 많아요. 액체나 향이 강한 음식을 담고 자주 씻어 재사용해야 하는 생활 식기로는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저도 생활 식기는 자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쓰임이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요즘은 옹기의 보관성에 초점을 맞춰서 차를 담는 합과 같은 무언가를 보관할 수 있는 단지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 여러 가지를 시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옹기가 자기에 비해 시장이 굉장히 좁아요. 지금 옹기를 만드는 분들은 가업으로 해오는 분들이 많아요. 젊은 분들은 옹기를 잘 안 해요. 요새 시장에서 찾아보기도 힘들 거예요. 옹기라고 하면 대개 장항아리나 뚝배기를 떠올려요. 저는 사람들이 옹기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바꾸고 싶었

던 것 같아요. 투박하고 무겁다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걸 깨고 싶었어요. 옹기도 충분히 예쁘고 실생활에 잘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일부러 날카롭고 섬세한 옹기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백자나 분청의 기법을 옹기에 적용하고 있어요. 현대적이고 세련된 옹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면을 깎아보고 상감기법을 활용해 그림도 그려보고 뚜껑과 몸통을 달리해보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저는 스케치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일부러라도 했는데 요즘은 그냥 몸을 움직이는 것이 더 좋아서 일단 손이 가는 대로 만들고 샘플링한 것들을 토대로 크기나 형태를 조금씩 수정해서 만들어보며 디자인을 완성해요. 제 작업은 일단 상감을 한 그릇과 상감이 들어가지 않는 그릇으로 나뉘는데요, 두 작업 모두 전기물레 성형을 해요. 건조 후에 후작업을 하고 어느 정도 마르면 잿물을 입혀요. 이때 상감이 들어가는 작업은 잿물을 입힌 후에 조각을 하고 초벌-상감-재벌의 순으로 진행이 되고, 상감이 들어가지 않는 그릇은 잿물을 입히고 완전 건조 후 바로 단벌로 번조를 해요.


### 주로 어디서 영감을 얻나요?

예전에는 산책, 꿈, 박물관, 전시회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최근 몇 년간은 그냥 일상에서 보이는 것들에서 얻는 것 같아요. 풀꽃, 달, 비 같은 건데 결국 자연이네요. 그리고 가끔은 예전에 해뒀던 스케치나 작업을 보기도 해요. 좀 더 자유분방했던 초기의 작업에서 영감을 얻을 때도 있어요.

### 브랜드가 <옹기발>이죠? 어떻게 지은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작업실이 옹기를 만드는 발 같았어요. 저는 옹기를 키우는 농부. 당시 공방 겸 집이 논밭 한 가운데 있었거든요. 게다가 제성이 전씨잖아요. 발전자. 이름이 한 부분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늘 지금을 살아내느라 목표나 계획을 세우진 않는데 그럼에도 굳이 이야기해보자면 호기심을 잃지 않고 다양한 재료들을 실험해 보는 것이예요. 작업실 옆에 몇 년 동안 묵혀둔 개펄, 그리고 콩대 재를 활용한 다양한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자꾸만 미뤄지네요. 느려도 조금씩 재료들을 탐구해 나가는 것이 목표 혹은 다짐입니다. 

## 심심한 완주 모이자! 모여!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 완주군 곳곳에 다양한 소식과 진행되는 프로그램 일정을 함께 해 보자. 상기 일정은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각 프로그램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심한 완주 사람들 고민하지 말고 여기로 모이자!

### 고산 청년거점공간 '청춘 방앗간'

#### 주방 비누 만들기

플라스틱 세제와 용기 대신, 직접 만든 천연 주방 비누를 만드는 시간이다. 환경과 건강을 지키고 싶은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3월 22일 (토) 오후 2시

#### 저속노화밥상

느리게 즐기는 저속 노화밥상은 조금 더 천천히,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지난달 뜨거운 관심과 함께 새로운 메뉴로 찾아온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3월 20일, 27일 (목) 오후 6시

참가비: 5,000원

#### 수요 영화데이

매주 수요일 오후 두 시! 청춘방앗간에서 영화를 상영한다. 이번 달에는 '캐스터웨이', '007 스카이폴', '셔터아일랜드'를 함께 본다. 따뜻한 청춘방앗간에서 영화를 즐기고 싶은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3월 12일, 19일, 26일 (매주 수) 오후 2시

#### 목요 음악감상실

한국 대중음악 명반100 앨범리뷰, 배철수 음악캠프 20년 그리고 100장의 음반, 책을 길잡이 삼아 함께 모여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진행정보: 3월 20일, 27일 (목) 오후 7시

#### 축구보는 짹이들 축구다큐

청춘방앗간에서 '화요 축구다큐'를 길잡이 삼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봄에는 축구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펼쳐진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3월 18일, 25일 (화) 오후 7시

#### 한 달 한 권 독서모임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이다. 혼자서는 읽기 어려운 독서를 방앗간 책모임을 통해 함께하자!

진행정보: 3월 격주 금요일 오후 3시

접수방법: 인스타그램 신청링크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00 김밥천국 2층

문의: 063-262-280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 월 공휴일 휴무)

인스타그램: @cheongchon\_

## 29초 단편영화 제작 워크숍

완주미디어센터에서 29초 단편영화 제작 워크숍을 진행한다. 29초, 그 짧은 시간 안에 감동과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는 기회로 짧고 강렬한 영화 제작의 매력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완주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공고글을 참고하면 된다.

진행기간: 3월 20일 (목)~4월 3일 (목) 오후 6시 30분~8시 30분

접수방법: 완주미디어센터 홈페이지 접수

문의: 070-4218-4313 사업팀

## 고산미소시장 옥수수, 달고나 판매



고산 미소시장에서는 이제 맛있는 구운 옥수수와 달고나를 판매한다! 따뜻한 봄날, 바삭하게 구운 옥수수와 달콤한 달고나로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고산미소시장으로 모이면 된다.

영업시간: 평일 예약주문만 가능, 주말 10시~재료소진시 까지

\* 옥수수 3개 5,000원

\* 달고나 체험 1인 3,000원, 주말 오전 11시~오후 4시

## 창작과 공유, 소통의 공간 '완주미디어센터'

### + "새 학기 새 출발 3월, 콩씨네와 함께"

시골극장 콩씨네 3월 상영 시간표를 공개한다.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과 영화를 깊이 있게 해 줄 <저녁극장>이 상영될 예정이다.

#### \*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3월 15일 (토) 오후 2시	웨일 라이더	드라마	전체 관람가
3월 22일 (토) 오후 2시	리를 부다	드라마	전체 관람가
3월 29일 (토) 오후 2시	동주	드라마	12세 관람가

#### \* 영화를 깊이있게 <저녁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3월 25일 (화) 오후 7시	행복한 라짜로	드라마	12세 관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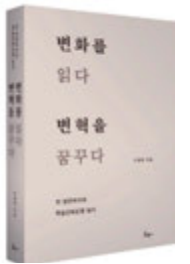
문의: 063-262-1895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10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 이종민 교수 '변화를 읽다, 변혁을 꿈꾸다' 출간

이종민 전북대학교 영문학과 명예교수가 40여 년간 펼쳐온 사회문화운동의 발자취를 담은 신간 '변화를 읽다, 변혁을 꿈꾸다'를 출간했다. 이번 책은 이 교수의 다양한 활동과 시대적인 변화를 기록한 글을 모아, 개인의 헌신이 어떻게 집단과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문화 형성 과정과 학술 연구, 그리고 대중 관심이 만나는 지점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빙산라켓견, 사지 말고 입양해요"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 두봉이 (♂)

짧은다리가 귀여운 두봉이!

- \* 직장인 봉사자들이 홍보와 상담 진행 중으로 입양 상담 외 구조 등 기타 문의는 받지 않고 있다.
- 입양을 기다리는 더 많은 아이들이 보고 싶다면? 인스타그램 @wanju\_star (별빛유기동물지킴이)

체중: 10kg

나이: 4살 추정

건강상태: 중성화 필요, 종합, 코로나 접종 완료

두봉이는 보호소 생활 4년 차다. 사람을 좋아하고 애교가 많으며 공격성 징적이 전혀 없다.

이런 두봉이에게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며 사랑을 베풀어 줄 가족이 절실히 필요하다.

입양 신청 방법: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 접속하여 신청



\*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일이므로 신중히 고민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

## 질문이 있는 이달의 그림책

**키워드 - 돌봄, 사라진 노인, 간병, 존엄**

문미순 지음 | 나무옆의자 | 257쪽 | 2023 | 1만4천원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



친구들과 ‘돌봄의 사회학’을 낭독하고 있다. 일본의 사회학자가 고령화 사회의 돌봄 문제를 분석하며 쓴 책이다. 읽다 보니 ‘우리가 겨울을 지나 온 방식’이라는 소설이 생각났다.

‘간병과 돌봄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는 이들의 벼랑 끝 선택’이란 띠지가 책을 열기 망설이게 한다. 하지만 50대 명주와 20대 준성의 인생에서 간병과 돌봄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책을 한 번 열면 손을 놓지 못하게 한다. 명주와 준성의 잔혹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 비현실적이지만 공감하고 응원하게 된다.

“품위 있는 삶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생존은 가능해야 하지 않겠어? 나라가 못 해주니 우리라도 하는 거지. 살아서, 끝까지 살아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 그때까진 법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야.”  
-p.218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들이 진정으로 필요하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이 사회에게도.

**키워드 - 여성, 슬픔, 완희, 사랑**

마이라 칼만 지음, 진은영 역 | 월북 | 186쪽 | 2025 | 2만5천원

우리가  
인생에서  
가진 것들



미국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인 마이라 칼만.

전 세계 미술관에서 전시를 열고 어른과 어린이를 위한 책을 그리고 쓰기도 한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진 것들’은 국내에서는 첫 발간 된 마이라 칼만의 아트북이다.

여성 작가들의 그림을 좋아한다. 다른 인종, 다른 나라이지만 여성으로써 살고 있는 인생은 서로 닮아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그림을 좋아한다. 마이라 칼만의 아트북에도 여성들이 많이 나온다. 그들이 들고 있는 물건들을 통해 지금의 나도 무엇을 가지고 있고 놓지 못하고 있는지 삶을 반추해 본다. 중간중간 적나라한 가족들의 이야기는 마이라 칼만의 솔직함에 놀라지만, 즐거운 수다를 떠는 느낌을 받게 된다.

진은영 시인이 번역해 완성된 ‘우리가 인생에서 가진 것들’을 감상하며 내 인생을 행복하게 때로는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잠시나마 근사한 경험을 하길 바란다.

베르:봄 책방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읍내1길 13

010-2074-5340

\* 주제를 비롯한 모든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말하기임을 밝힙니다. | 신작 중심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매일  
설  
레

#69 온라인연애



“... 처음엔...  
‘오늘은 배달시키지?’ 없어.  
어느새 ‘오늘 뭐 시키지?’가 되고.  
내 취향은 알아서 데우도 후한데고.  
VIP라며 특별한 데우도 해주더...



“... 324... 324도 애는 착하다고 할건 아니지?”



설레는 제주에서 그림 그리고 디자인한다.

촌티작렬 시골잡지

완두콩 구독문의

291-8448



## “우리는 마을건강지킴이”

완사넷, 마을돌봄 아카데미 수료생 배출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하 완사넷)가 진행한 ‘2025 마을돌봄아카데미 건강지킴이양성과정’이 지난 2월 13일 48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완주 곳곳의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완사넷과 사회적협동조합 양지뜰, 전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건강지킴이 교육과정에서는 건강체크(혈압·혈당·체온 측정)와 건강 관리(운동, 영양, 인지, 심리)의 필요성과 방법, 어르신 소통 기술 및 직무 교육 등이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건강지킴이 교육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사회적협동조합 양지뜰) 31명이, 완주 마을돌봄 활동가 교육에는 완주군 역량강화사업 교육 수료생 17명이 참여했다.

교육을 통해 양성된 노인일자리 참여자 40명(25년 2월 교육생 31명, 24년 12월 교육생 19명)은 완주군의 특성에 맞는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마을돌봄 활동가 17명은 완사넷이 진행하는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찾아가는 마을돌봄 서비스와 결합하여 마을의 건강을 책임질 예정이다.

완주군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인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김종일 사무국장은 “마을돌봄 아카데미를 수료하신 활동가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 마을돌봄 아카데미는 건강지킴이 양성과정을 시작으로 마음산책이꿈이와 환경반장 등 지역의 문제들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과 만들어 갈 예정이다.

## 양생원과 일 년 열두 달



#윤대라 #artistDERA #올라선녀마마  
윤대라는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공부하고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었어요.  
고양이 양생원, 멍멍이 견재, 꼬꼬닭 함께  
좌충우돌 우당탕탕 완주살이 12년 차.  
<https://www.instagram.com/artist.dera/>



## 슬퍼도 비탄에 잠기지 않는

### 이종민의 다스림의 음악

#### (15) 폴림양상불의 [어디 있나요]



QR을 스캔해보세요.  
음악이 재생됩니다.

우리 전통음악 경계선 넘기의 놀라운 성취로 손꼽히는 작품이 있습니다. 폴림양상불의 [어디 있나요]("Where Are You?")입니다.

폴림양상불은 '한국 무용음악의 대중화와 더불어 한국인의 정서를 현대화하는데 기여해온' 흥동기 음악감독이 창단한 퓨전양상불입니다. 이 연주단은 특히 한국 호주 수교 50주년 기념식의 개막 및 폐막 공연에서 기립박수의 환호를 받은 바 있으며 발매한 음반도 대중들에게 크게 인기를 끌며 한국적인 음악의 힘을 맘껏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곡은 피아노와 첼로, 바이올린 등 서양 악기와 우리의 해금이 만나 그리움의 정조를 매력적으로 그려줌으로써 한국음악을 낯설어하던 많은 이들의 감수성을 활짝 열어주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를 입에 대한 그리움을 통해 우리들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물음을 동시에 담고 있어 더 깊게 다가옵니다.

처음 피아노 건반 위의 빠른 손놀림은 떨어지기 전 가을 나뭇잎들의 바람에 휘둘리는 모습을 닮았습니다. 아니 다가올 이별의 아픔으로 딱딱해진 마음을 달래듯 간지럽히는 듯하기도 합니다. 이어 첼로와 해금이 위로하는 듯 하면서 오히려 슬픔을 정조를 고조시켜줍니다. 이별은 불가피한 것, 다시 태어나기 위해 근원으로 환원하는 것임을 알지만 그렇다고 슬픔이 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 바이올린이 나서 맑고 고운 선율로 애이불비(哀而不悲)의 절제를 권합니다. 이

후 타악까지 어우러지면서 슬퍼도 비탄에 잠기지 않는겠다는 다짐을 우리들 존재의 근원에 대한 염원을 겸하여 번갈아가며 제기합니다.

'그대는 어디 있느냐/ 죽지 않는 그대가 이 세상에는 없구나' 한용운 시인의 절규처럼 '천추에 죽지 않는 논개'로 표상되는 제대로 된 입은 항상 부재(不在)로 존재합니다. '숨은 신'(Hidden God)이 그러하듯 온전한 것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는 숨어 있습니다. 하여 '어디 있나요?'를 되뇌게 합니다.

독일 쾰른지방의 어느 건물 지하실 벽에 이런 글귀가 피맺힌 낙서로 새겨져 있었다지요?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절 때에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계심을 믿는다.'

요즘처럼 자아의 진실과 세상의 허위 틈에서 고뇌하는 우리들이 택할 수 있는, 아니 고수해야 하는 태도가 바로 이런 '비극적 세계관'이 아닌가 합니다. 세상이 온통 거짓과 부패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런 세상에 곱히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 거짓 세상을 버리고 초월

적 진실 속으로 은둔해버릴 수도 없을 때 현실이 싫지만 이 현실을 통하지 않고는 진실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비극적 역설 앞에 고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재로만 존재하는 진실. 다시 신동엽 시인은 이를 먹구름에 갇혀 하늘을 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비유했습니다. 푸른 하늘이 엄존하지만 구름 껍데기에 가려 볼 수가 없습니다. 하여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탄식하며 '껍데기는 가라' 외치는 것입니다. 입의 부재로 인한 안타까움은 우리들 삶의 실존적 상황일 뿐입니다. 그러니 낙담하거나 비탄에 침잠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기나 긴 암흑의 터널.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스산합니다. 그렇다고 절망에 몸을 내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 연주 반복해 들으시며 그런 우리들 마음 잘 추스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연주에서 주목할 일은 바이올린이나 첼로 등 서양악기에 결코 뒤지지 않는 활현악기 특유의 매력을 듬뿍 보여주고 있는 해금의 당당함입니다. 우리 악기 중에서 적응력이 가장 뛰어난 해금은 겨우 두 개의 현으로 우리들 마음을 맘껏 풀어주기도 하고 다소곳이 다스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 악기의 당당함에 기대서라도 움츠러드는 마음 다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봄입니다!



이종민은 40여 년간 지켜온 대학 강단에서 물러나 고향 완주에서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마을 소식

##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감성스폰'

완주문화회의집·삼례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가 오는 15일,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특별한 체험을 운영한다. 센터의 지역주민연계사업인 '감성스폰'은 바쁜 일상 속 문화 체험을 누리기 힘든 완주군민을 위해 최대한 요일과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연구하여, 매력 있고 신선한 단기성 체험을 제공한다. "지역민이 문화 체험을 통해 잠시 쉬어가

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 좋겠다"고 전한 길미경 센터장의 바람처럼 센터에서 진행되는 여러 프로그램은 분야가 다양하고 접근성도 높아 완주군민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8일 첫 번째 프로그램인 '토피어리 만들기'를 시작으로 15일 삼례읍 대표 특산물 딸기를 상징하는 '딸기비누 만들기'가 이루어진다. 완주군민이라면 누구나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



며, 접수는 선착순 방문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밴드 '완주문화회의집·삼례생활문화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 문의사항\_ 063-291-0586

## 무명의 밥 딜런, 그의 시작점

### 김영혜의 영화산책

#### (2) 컴플리트 언노운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가야 그를 비로소 한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바다를 건너가야 흰 비둘기는 마침내 모래톱에서 잠들 수 있을까?

미국 대중음악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를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미국 포크뮤직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고 칭송받는 뮤지션 밥 딜런(Bob Dylan)의 <바람만이 아는 대답 Blowin' in the Wind>이라는 노래의 첫 구절이다.

그렇다. 이 영화는 밥 딜런에 관한 영화이다. 열아홉의 나이에 기타 하나 달랑 들고 뉴욕으로 간 완전 무명(a complete unknown)의 밥 딜런은 조그만 클럽에서의 몇 차례의 공연만으로 “재능이 옷 술기를 뚫고 튀어나오고 있는 듯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일약 스타덤에 오른다. 그는 최근까지도 음반을 내고 2016년도에는 대중 음악인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도 받는다. 그러나 이 영화는 1961년 그의 데뷔 때부터 포크뮤직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혔다고 평가되는 1965년도 뉴포트 뮤직 페스티벌까지의 시간만을 다룬다.



영화 포스터

제임스 맨골드 감독, 티모시 살라메 주연, 2025, 미국

담배를 뽕뽕 피우며 틀에 갇히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그야말로 옷술기마다 넘쳐나는 음악적 재능을 뽐뽐 뽐어내며 대중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이미지를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젊은 날의 반항아 밥 딜런을 아름다운(?) 티모시 살라메가 매우 열심히, 성실히 재현해낸다.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Call Me by Your Name>에서 그토록 섬세하고 풋풋하게 첫사랑의 아픔을 연기하던 소년, <둔 Dune>에서 사막을 지배하는 영웅으로 거듭나던 그 용사는 더 이상 이 영화에서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모든 노래와 연주를 직접 소화해낸다. 그것도 아주 훌륭히.

그러나...

티모시 살라메는 한 시상식에서 여전히 밥 딜런에 빙의한 채 “난 위대한 배우가 될 거야!”라고 외쳤다. 그러나 이마에 ‘나 고뇌’라고 써 붙이고

있는 밥 딜런을 연기하기에는 그는 너무 섬세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다. 엄청난 노력의 산물일 것이라 생각되는 노래도 아주 흡사하지만 밥 딜런의 터프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목소리에 미치지 못하는 듯하다.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밥 딜런, 그리고 당대의 또 한 명의 천재적 뮤지션이자 밥 딜런의 잠깐의 연인이기도 했던 조안 바에즈(Joan Baez)의 노래들을 다시 듣고 싶은 욕구에 불타게 한다는 점이다. (천상의 목소리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조안 바에즈는 밥 딜런과의 슝슝했던 사랑을 <다이아몬드와 녹 Diamonds & Rust>이라는 곡에서 감동적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이 노래는 그녀의 가장 큰 히트곡 중 하나가 되었다.)

그래도...

미국 포크뮤직의 참맛을 잘 모르는 나로서도 영화 말미 뉴포트 포크뮤직 페스티벌에서 밥 딜런이 저지른 황포(!)가 얼마나 혁명적이었던가는 느낄 수 있었다. 엄격히 어쿠스틱 기타와 하모니카, 만들어진 정도만 허용되는 포크뮤직의 신성한 성전에서 밥 딜런이 일렉트릭 기타를 치기 시작했을 때, 그전에 연주되던 모든 포크뮤직이 일순간에 ‘촌스러운 과거의 유물’로 전락하는 것을 보면 밥 딜런은 아마도 미국의 서태지였던 듯하다.

김영혜는 부산에서 태어나 여기저기 떠돌다가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전주에 이십 년 넘게 정착해 살았다. 얼마 전 은퇴해서 완주에 작은 땅을 일구며 살고 있다.

### 마을 소식

#### 운주 안심마을 장수어르신 생신 축하연

지난 3월 8일 운주면 안심마을회관에서 열린 장수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하는 잔치에 주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다. 잔치의 주인공은 박임순(99), 신자연(91), 한기순(90) 어르신이다. 그중 최고령인 임순 어르신의 생신을 이틀 앞둔 주말에 마을주민들이 한데 모여 떠들썩하게 놀았다. 구수를 넘긴 어르신들을 모신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기획되었다. 안심마을 한상일(67) 이장이 먼 곳에 사는 자녀들을 둔 어르신들의 장수를 축하하고 앞으로도 만수무강을 바라며 마련한 자리다.

그는 “마을운영위원들과 상의해서 만장일치로 진행했고,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재능기부와 찬조 형식으로 볼거리 많은 잔치를 꾸밀 수 있었다”며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꽃다발을 전하러 온 자녀들도 잔치를 즐기고 가셔서 뿌듯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마을 행사가 있을 때마다 사회자로 활약하는 김성룡(65) 마을운영위원은 “안심마을은 90%가 넘는 외지 출신 귀촌인들이 원주민과 어울리는 행사를 좋아하고, 행사 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한상일 이장 또한 부천에서 이곳으로 귀촌한 지 15년 차, 이장직을 세 번째 맡아 마을의 화합 도모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타지에 거주하는 고향 사람들을 초대해서 ‘안심마을 한마음 잔치’를 열기도 했다. 한상일 이장은 “마을 행사에 성심성의껏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싶다”고 웃었다.

## 봄, 농한기의 정적을 깨는 침입자

농/촌/별/곡



차 남 호

마침내 봄이다. 아직 꽃을 구경하진 못했다. 올해는 개화 시기가 꽤 늦다고, 여기저기 매화축제가 줄줄이 연기됐다더니 우리집 울 안에도 꽃은 멀어 보인다. 경칩 무렵이면 꽃잎을 열어온 매화는 여태 망울을 꼭 닫고 있고, 산수유는 이제 막 터지는 참이다.

동네 특방에 활짝 핀 노오란 복수초가 올라와 앞뜰에 나섰다. 날은 확 풀려 푸근하지만 풍경은 웅덩그렁하기 짝이 없다. 풀 나무에는 물이 오르고 한껏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화사한 꽃과 새순을 '봄'을 구할 수 없으니 춘래불사춘, 봄은 왔으며 봄 같지 않은 시절이다.

어디 풍경뿐인가. 비상계엄에 이은 내란 사태가 순리대로 수습돼 정상을 되찾나 싶더니 뜻밖의 상

황이 펼쳐지고 있어 걱정이다. 정략적 대응이 판치고 극우세력의 난동까지 겹쳐 시국은 어수선하기 그지없다. 물론 사필귀정으로 마무리되리라 믿지만 어떤 후유증을 남길지, 또 다른 심각한 사태로 이어지는 않을지 심란하기만 하다.

이래저래 봄 같지 않은 봄. 사실 늦어진 개화 시기, 어수선한 시국이 아니라도 벼농사 전업농인 나에게 봄은 아직 먼 얘기다.

아직 동안겨.

문득 밖으로 나서보니  
꿈결처럼 슬픈 봄이...

며칠 전 SNS에 울안의 나무에 매달린 꽃망울 사진을 올리면서 붙인 감회는 이랬다. 꿈결처럼 다가오는 봄이 슬픈 까닭은 농한기의 정적을 깨트리는 침입자로 보이기 때문이다. 가을걷이를 마치고 농가가 모두 끝난 겨울은 농부에게 더없이 아늑한 시간이다. 마치 세간을 떠나 출가한 사문이 문을 닫아걸고 도를 닦는 동안겨 같은 것이다. 불든 화두는 뿔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깨달음은 아직 멀기만 한데 겨울이 저물고 이제 선방의 문을 열어야 하니 오는 봄이 어찌 야속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현실의 농부라 해도 마찬가지다. 겨우내 빈둥대느

라 몸과 마음은 풀어질 대로 풀어져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이제 다시 농사일 준비할 시간이야!" 일깨우는 자가 나타난 셈 아닌가. 그러니 다가오는 봄이 밀려드는 적군으로 보일 건 당연하다.

그래도 어찌겠는가. 거스를 수 없는 게 자연의 섭리인 것을. 한동안은 야속한 세월을 탓하다가 시나브로 익숙해지겠지. 그리고 축 늘어진 심신을 추슬러 농사를 시작할 것이다.

남쪽으로 난 창문을 통해 따사로운 봄햇살이 들어 쬐니 완전한 봄임을 알겠다. 머잖아 울안에는 매화, 산수화, 명자꽃, 개나리, 벚꽃. 눈부신 꽃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농부는 그 꽃기운을 받아 농한기의 늑늑한 그림자를 떨쳐내고 들녘으로 나서겠지.

그렇지 않아도 이곳저곳 공공기관들도 '영농준비'를 위한 업무를 개시했다. 고산권벼농사두레도 엇그제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지난 6년 동안 대표를 맡아 수고했다며 '감사패'를 주었는데 그걸 받는 심경이 좀 복잡했다. 올해부터 벼두레 활동에 적잖은 환경변화가 따르게 되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주문받은 쌀 택배를 보내러 읍내에 다녀오는 길, 차창 넘어 불어오는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래, 어차피 봄은 오게 돼 있다.

비봉 염암마을

### 완주군의회 소식

## 완주 한우 발전을 위한 의견 교류 간담회

완주군의회(의장 유익식)가 3월 5일 완주 한우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완주 한우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고산면에 위치하고 있는 완주 한우협회에서 실시한 간담회에는 완주군의회를 대표해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과 서남용 의원, 심부건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도의원과 한우협회, 완주한우협동조합, 화산한우영농조합, 전북 미경산한우협동조합 등 완주한우관련 단체, 완주군 해당 부서 담당자 등이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북특자도의 한우사육 현황과 완주군의 한우산업의 현주소를 집어보고 완주 한우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완주 한우의 품질 향상을 통한 완주 한우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새로운 판로 개척 등에 많은 의견들이 모아졌으며, 한우 농가의 자립형 구조마련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자리에 함께한 의원들은 "이번 간담회는 우리 완주 한우의 품질향상과 한우농가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 모인 첫 번째 자리"라며, "다양한 현안사항들에 종합해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 한우사육 현황은 754농가에 37.696두로 전북특자도 내에서 다섯 번째 규모다.



완주마을이야기 완두콩  
완주 CB공동체

- 발 행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 발 행 인 이용규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나들목로 338-33
- 대 표 전 화 063-291-8448 • 팩스 063-261-8448
- 홈 페 이 지 www.wandookong.kr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완주.라00002 구독료 월 5,000원 후원 월 1만 원  
 독자기고 및 제보 toktok1942@hanmail.net



고산향교 명륜학당

# 소학에서 시경까지 배워보는 무료 한문교육 안내

매주 금요일 심화반 오후 2~4시    강사 : 후산 김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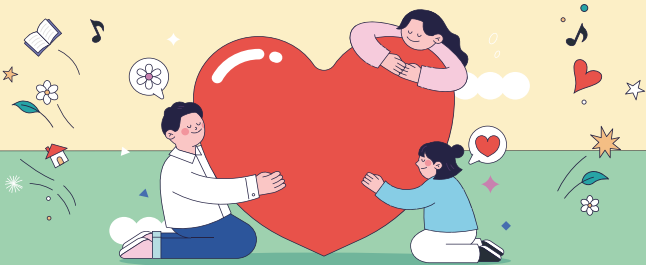
매주 토요일 기초반 1대1 맞춤교육(시간조정 가능)



문의 고산향교 박석재 전교 010-2350-3699

2025 완주군 역량강화사업 마을돌봄 아카데미

## 내 이웃의 마음을 돌봄 마음산책 이꿈이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어떤 **사람** 이 들을 수 있나요?

이웃과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완주군민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을 기다립니다.  
(심리 및 상담관련 자격증 보유자, 사회복지(돌봄)관련 종사자, 마을사무장, 이장, 부녀회장 경험자 등)

어떤 **활동** 을 하나요?

수료 후 희망자는 찾아가는 마을돌봄 서비스에 참여하게 됩니다.

- 모집정원** 20명(서류심사 선별)
- 모집기간** 2025. 03. 10.(월) ~ 2025. 03. 20.(목)
- 서류심사** 2025. 03. 21.(금)
- 참가확정** 2025. 03. 21.(금) 개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 링크 또는 QR코드 촬영 접속 후 신청서 제출  
<https://bit.ly/2025마음산책이꿈이>
- 교육장소** 완주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화산로 830-14)
- 교육일정** 2025. 03. 25.~2025. 04. 15. 매주 화요일 / 10:00~17:00 (하루 6시간, 총 4일) ※ 점심식사 제공
- 문의**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역량강화사업팀 063-905-5050



완주군 WANJUGUN    모든가 속하는 마을정 도시 **완주**

# 제3회 완주 모악산 웰니스 축제

모악산에서 리셋!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순간

2025. 4. 5(토) - 4. 6(일) 2일간  
모악산 축구장 및 전북도립미술관 일원

- 웰니스 체험 모악산 숲크닉, 구이저수지 둘레길 걷기
- 웰니스 플레이그라운드 에어바운스, 웰니스 라이브커머스
- 전북도립미술관 <화전(畫展)놀이> <소리를 그리다> 등